

## 이슈분석

# 노동력상태 이동과 연령별 고용구조

안 주 엽\*

## I. 문제 제기

### ◆ 오륙도, 사오정, 그리고 삼팔선 그 이후?

- 2003년은 대부분 시장참여자들이 ‘체감경기가 경제위기 때보다 안 좋다’고 인식
  - 연초부터 시작된 다양한 외부충격(external shocks)과 2002년 내수진작책의 후유증이 나타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경제성장률은 3%를 하회
  - 2002년 61.9%까지 상승하였던 경제활동참가율이 61.4%로 하락하고 취업자도 30천 명 감소하여 실업률은 3.4%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
-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 상시화로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팽배
  - 다양한 고용형태의 출현과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는 평생직장에서 평생일자리로 개념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노동시장이 유연하여 한 직장에서 실적이 짧은 기간 내에 다음 일자리로 연결된다면 ‘실직에 따르는 고통’은 상대적으로 적어질 것임.
  -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소위 ‘오륙도’, ‘사오정’, ‘삼팔선’, ‘이태백’이라는 신조어는 상시 구조조정과 임시일용직의 활용 및 이에 따른 고용불안정을 의미하는 것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jyahn@kli.re.kr).

◆ 고용불안정 심화여부에 대한 판단근거가 필요

- 다양한 신조어로 표현되는 고용불안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대응방향이 필요
  - 노동시장 전반적으로 또는 일부에서 고용불안정이 심화된 것이 사실이라면,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에 맞춰 원활한 재취업을 도모하는 노동정책이 긴급하게 요구됨.
  - 그러나 고용불안정 심화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이러한 현상은 2003년 중 일시적인 심리효과에 따른 것이므로 성장원동력의 근본(fundamentals)을 공고히 하는 경제·산업정책이 우선
  - 보완적으로 공공고용안정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해 실직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
-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고용불안정과 관련된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1998년 1월~2002년 12월)를 활용하여 지난 5년 간 연령별 고용구조와 노동력상태 이동을 살펴봄으로써 고용불안정성 심화여부를 구명

## II. 노동력 상태와 연령구조

◆ 생산가능인구 증가를 앞지르는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 경제활동인구는 1998년~2002년 사이 연평균 1.66%씩 증가하여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1.11%를 크게 상회하였는데, 경제위기 이후 크게 회복되는 추세를 보임.
  - 이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은 2002년 61.9%로 경제위기 이전인 1997년 62.5%보다는 낮으나 강력한 충격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에 상당히 회복된 편
  - 취업자 증가율 역시 연평균 2.70%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여 실업자가 급속히 줄어들고 실업률도 7.0%에서 3% 초반으로 하락
  - 생산가능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로 하락하고 미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40%로 하락하여 취업비중이 60%에 이름.

<표 1> 노동력 상태별 인구

(단위: 천명,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2-1998	연평균 변동
생산가능인구	35,347	35,758	36,186	36,579	36,948	4.53	1.11
경제활동인구	21,427	21,665	22,069	22,417	22,888	6.82	1.66
취업자	19,937	20,291	21,156	21,572	22,180	11.25	2.70
임금근로	12,296	12,663	13,361	13,659	14,161	15.17	3.59
상용직	6,534	6,135	6,395	6,714	6,852	4.86	1.19
임시직	4,042	4,254	4,608	4,726	4,881	20.76	4.83
일용직	1,720	2,273	2,357	2,218	2,428	41.19	9.01
비임금근로	7,641	7,628	7,795	7,913	8,019	4.94	1.21
고용주	1,392	1,351	1,458	1,554	1,620	16.40	3.87
자영자	4,225	4,351	4,406	4,496	4,586	8.57	2.08
무급종사자	2,025	1,925	1,931	1,863	1,812	-10.51	-2.74
미취업자	15,410	15,466	15,031	15,007	14,769	-4.16	-1.06
실업자	1,490	1,374	913	845	709	-52.45	-16.96
비경제활동인구	13,919	14,092	14,118	14,162	14,060	1.01	0.25

주: 본고에서는 1998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패널화한 후 인접한 두 달 사이에 노동력상태 이동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2003년 1월부터 표본이 교체되었으므로 2002년 자료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 노동력 상태별 인구 비중

(단위: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2-1998	연평균 변동
경제활동인구	60.6	60.6	61.0	61.3	61.9	1.33	0.33
취업자	56.4	56.7	58.5	59.0	60.0	3.62	0.91
임금근로	34.8	35.4	36.9	37.3	38.3	3.54	0.89
(비중)	(61.7)	(62.4)	(63.2)	(63.3)	(63.8)	2.17	0.54
상용직	18.5	17.2	17.7	18.4	18.5	0.06	0.01
(비중)	(53.1)	(48.5)	(47.9)	(49.2)	(48.4)	-4.75	-1.19
임시직	11.4	11.9	12.7	12.9	13.2	1.78	0.44
일용직	4.9	6.4	6.5	6.1	6.6	1.71	0.43
비임금근로	21.6	21.3	21.5	21.6	21.7	0.08	0.02
고용주	3.9	3.8	4.0	4.2	4.4	0.45	0.11
자영자	12.0	12.2	12.2	12.3	12.4	0.46	0.12
무급종사자	5.7	5.4	5.3	5.1	4.9	-0.82	-0.21
(비중)	(26.5)	(25.2)	(24.8)	(23.5)	(22.6)	-3.90	-0.98
미취업자	43.6	43.3	41.5	41.0	40.0	-3.62	-0.91
실업자	4.2	3.8	2.5	2.3	1.9	-2.30	-0.57
비경제활동인구	39.4	39.4	39.0	38.7	38.1	-1.33	-0.33

주·자료: <표 1> 참조. 비중은 각각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직, 비임금근로 대비 무급종사자의 비중임.

- 비임금근로보다는 임금근로에, 임금근로에서는 상용직보다는 임시직과 일용직에 치중하여 일자리가 창출되어 취업구조가 열악해짐.
  -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증가율은 연평균 1.2%에 그친 반면 임시직은 4.8%, 일용직은 9.0% 증가하여 임금근로자 중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인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48.4%로 하락
  -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주와 자영자는 각각 3.9%와 2.1% 증가하여 경기하락에 따라 자영업이 임금근로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임.

◆ 평균연령은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에서 덜 상승

- 임금근로자 평균연령은 40.8세로 1998~2002년 사이에 0.86세 상승하는데 그친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47.1세로 높은 편이며 동 기간 중 1.47세나 상승
  - 1998년 임금근로자 평균연령은 생산가능인구보다 2.7세나 낮았으나 2002년에는 3.4세로 확대되어 청년층 신규진입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음을 보여줌.
  - 실업자의 연령은 오히려 하락하여 청년층의 실업확률이 높고 실업자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뜻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38.5세에서 40.8세로 2.33세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가장 고령화속도가 빠르며 이는 고령자에 대한 고용기회나 취업기회가 줄어든 것을 의미

<표 3> 노동력 상태별 평균 연령

(단위: 천명,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2-1998	연평균 변동
생산가능인구	39.1	39.5	39.8	40.3	40.7	1.53	0.38
경제활동인구	39.6	39.9	40.0	40.3	40.6	1.01	0.25
취업자	40.0	40.2	40.3	40.5	40.8	0.86	0.21
임금근로	36.4	36.7	36.8	37.0	37.3	0.83	0.21
상용직	35.8	36.2	36.1	36.1	36.3	0.54	0.14
임시직	35.5	35.5	35.5	36.0	36.5	0.94	0.24
일용직	41.0	40.5	41.0	41.4	41.5	0.47	0.12
비임금근로	45.6	46.0	46.3	46.7	47.1	1.47	0.37
고용주	42.2	42.6	42.8	43.1	43.5	1.39	0.35
자영자	47.1	47.5	47.9	48.4	48.6	1.43	0.36
무급종사자	44.8	45.0	45.2	45.7	46.5	1.68	0.42
미취업자	38.1	38.5	39.3	39.9	40.4	2.36	0.59
실업자	34.4	34.9	34.2	33.9	33.2	-1.15	-0.29
비경제활동인구	38.5	38.9	39.6	40.2	40.8	2.33	0.58

주·자료: <표 1> 참조.

-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39.1세에서 40.7세로 1.53세(연평균 0.38세) 상승
  - 상용직 근로자 평균연령은 36.3세에 불과하고 일용직과 함께 연령상승이 가장 완만
-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서비스업(31.0세)과 보건 및 복지사업(31.9세)이 저연령 우위 산업인 반면 농림어업(54.4세)과 가사서비스업(51.8세) 및 부동산 및 임대업(45.3세)이 고연령 우위 산업
- 광업(43.9세), 국제 및 외국기관(42.7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1.5세)건설업(40.6세) 순으로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
  - 반면 도소매업(33.0세), 통신업(34.7세), 교육서비스업(34.9세)은 상대적으로 저연령 중심의 고용구조

<표 4> 산업별 평균 연령 - 임금근로자

(단위: 천명, %)

	1998	1999	2000	2001	2002	연평균 변동
전산업	36.4	36.7	36.7	36.9	37.3	0.21
농림어업	51.4	52.0	54.4	53.8	54.4	0.75
광업	42.5	44.6	45.5	45.1	43.9	0.36
제조업	36.0	36.5	36.6	37.1	37.4	0.36
전기가수수도사업	38.5	38.0	37.3	36.7	36.8	-0.43
건설업	37.9	38.4	39.4	40.2	40.6	0.68
도소매업	32.0	32.0	32.3	32.4	33.0	0.24
숙박및음식업	35.6	35.4	35.8	36.4	36.8	0.32
운수통신업	38.2	37.9				
운수업			38.9	39.3	39.7	0.41
통신업			34.2	34.1	34.7	0.24
금융및보험업	34.9	35.2	35.2	35.3	35.4	0.12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38.6	39.1				
부동산 및 임대업			45.5	45.3	45.3	-0.09
사업서비스업			36.6	36.8	37.9	0.6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40.3	41.3	41.1	41.5	41.5	0.30
교육서비스업	35.9	36.0	35.2	35.2	34.9	-0.2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1.2	31.3	31.9	31.8	31.9	0.18
공공, 사회, 개인서비스업	36.1	35.7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29.9	30.8	31.0	0.53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36.9	36.8	37.0	0.24
가사서비스업	50.6	51.5	51.1	51.2	51.8	0.30
국제 및 외국기관	53.8	51.8	48.0	43.4	42.7	-2.78

주·자료: <표 1> 참조.

- 최근 고령화가 가장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은 고연령 우위산업인 농림어업(연평균 0.75세 상승)과 중위연령층인 건설업(연평균 0.68세 상승), 저연령 우위산업인

사업서비스업(연평균 0.61세 상승),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서비스업(연평균 0.53세 상승)

- 반면 국제 및 외국기관에서 임금근로자 평균 연령은 지난 4년간 8.9세나 하락하였고, 전기가스수도사업에서는 1.7세, 교육서비스업에서는 1.0세나 낮아져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연령 위주 고용구조로 개편

### III. 노동력 상태 이동과 연령구조

◆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이행하는 확률(실직확률)은 3.1%로 하락

- 일정 달과 바로 다음 달의 경제활동상태의 구조를 보는 것이 마르코프 전환행렬
  - 일정 시점(본고에서는 일정 달)  $t$ 에서 경제활동상태를  $y_t$ , 바로 다음 시점  $t+1$ 에서 경제활동상태를  $y_{t+1}$ 이라 하면, 이는

$$y_{t+1} = T \cdot y_t$$

로 표현가능하며,  $T$ 는  $S \times S$  1계 마르코프 전환행렬(the first-order Markov transition matrix),  $S$ 는 고려하는 경제활동상태의 수효

- 전환행렬  $T$ 의 각 요소(element)는 일정 시점에 경제활동상태  $s \in \{1, 2, \dots, S\}$ 에 있던 자가 다음 시점에 경제활동상태  $v \in \{1, 2, \dots, S\}$ 로 이행하는 확률을 표시
- 취업자 중 다음 달에 실업으로 이행하는 자는 1998년 301천 명(1.6%)에서 2002년에는 134천 명(0.6%)로 감소
  - 반면 실업자가 다음 달에 취업하는 확률은 21.0%에서 25.8%로 상승하였으며, 다음달에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할 확률(일종의 실망실업, discouraged worker effect)은 11.1%에서 10.4%로 다소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 중 다음 달에 구직활동을 재개하여 실업자가 되는 소위 부가노동자효과(added worker effect)는 1998년에 1.6%(212천 명)에서 2002년에는 0.7%(94천 명)로 상당히 하락하여 경제위기 후 경기반등을 반영

<표 5> 노동력상태 이동 (1998~2002)

(단위: 천명)

시점 t	시점 t+1	전체	취업으로	실업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표본탈락
1998년	취업에서	19,937	18,520	301	536	580
	실업에서	1,490	297	962	157	75
	비경제활동인구에서	13,919	511	212	12,750	445
1999년	취업에서	20,292	18,832	231	553	676
	실업에서	1,374	322	832	146	74
	비경제활동인구에서	14,092	574	185	12,806	528
2000년	취업에서	21,156	19,759	179	586	632
	실업에서	913	230	544	93	47
	비경제활동인구에서	14,118	567	128	12,939	484
2001년	취업에서	21,572	20,176	164	586	647
	실업에서	845	215	495	92	43
	비경제활동인구에서	14,162	611	128	12,927	496
2002년	취업에서	22,180	20,909	134	540	597
	실업에서	709	174	429	70	35
	비경제활동인구에서	14,060	559	94	12,948	459

주: 원자료를 패널화한 후 인접한 두 달 사이에 노동력상태 이동을 구한 후 각 년도별로 평균을 구함. 다만 2003년 1월부터 표본이 교체되었으므로 2002년 자료에서 t는 1월부터 11월까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6> 노동력상태 이동행렬 (1998~2002)

(단위: 천명)

시점 t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인구		
	취업	실업	비경활	취업	실업	비경활	취업	실업	비경활
1998	95.7	1.6	2.8	21.0	67.9	11.1	3.8	1.6	94.6
1999	96.0	1.2	2.8	24.8	64.0	11.2	4.2	1.4	94.4
2000	96.3	0.9	2.9	26.6	62.7	10.7	4.2	0.9	94.9
2001	96.4	0.8	2.8	26.8	61.7	11.5	4.5	0.9	94.6
2002	96.9	0.6	2.5	25.8	63.7	10.4	4.1	0.7	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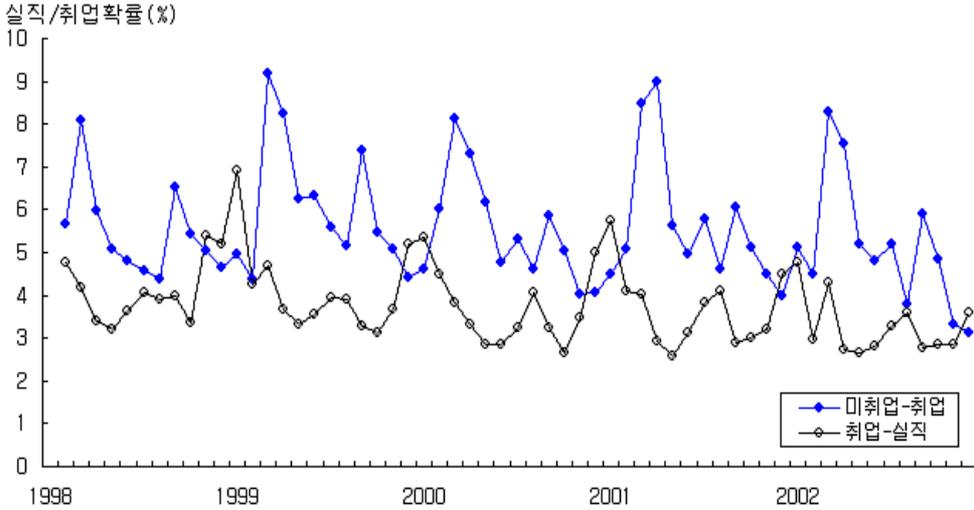
주: <표 5>로부터 시점 t의 각 상태별로 노동력상태 이동 비중을 구함. 다만 시점 t+1에 표본탈락한 경우는 제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월별 실직확률이나 월별 취업확률 모두 지난 5년 동안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하였으나 실직확률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실직확률은 매월 약 0.020% 포인트 하락(매월 2.09천 명 감소)하고 취업확률은 매월 0.016% 포인트 하락, 전반적으로 취업확률이 실직확률보다 높은 편

— 실직 대비 구직비중은 월별 변동을 보이나 기간평균 111.8이며 하락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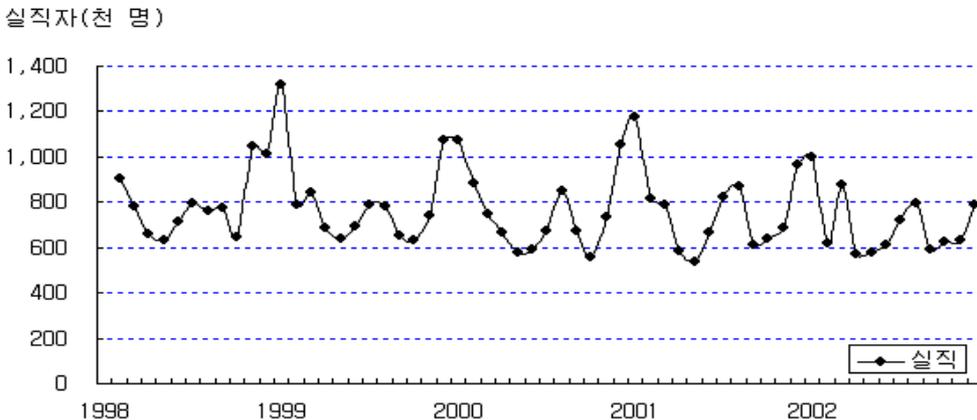
[그림 1] 실직·취업확률 월별추이 (1998.1~2002.11)



주: 실직확률은 시점 t에 취업자 중 시점 t+1에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상태로 이동하는 확률이며, 취업확률은 시점 t에 미취업(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시점 t+1에 취업할 확률 (표본 탈락한 경우는 제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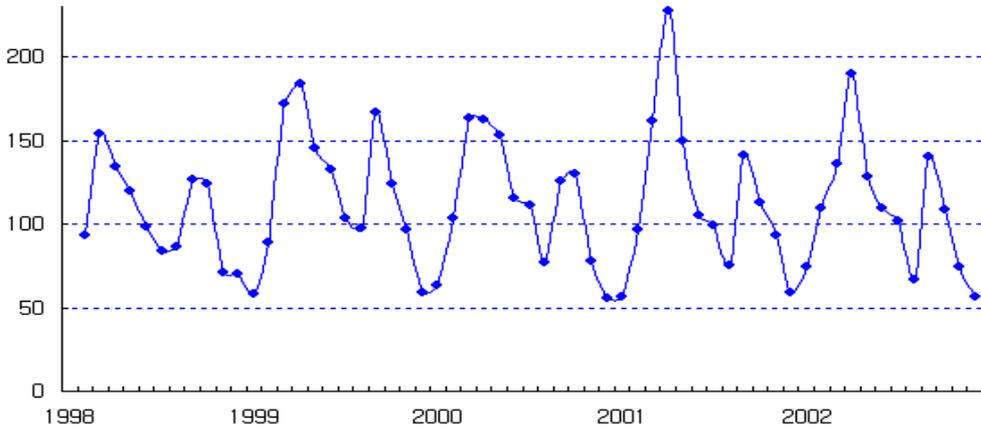
[그림 2] 월별 실직자 추이 (1998.2~2002.12)



주: 시점 t에 취업자 중 시점 t+1에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동한 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3] 월별 구직-실직 비중 추이 (1998.2~2002.12)



주: 시점 t에 취업자 중 시점 t+1에 실직자 대비 시점 t에 미취업자 중 시점 t+1에 구직자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지난 5년 동안 취업-미취업상태 사이의 이동성은 오히려 떨어진 편

-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1년 취업유지확률은 61.5%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에는 70.5%로 상승하고 1년 미취업유지확률 역시 54.1%에서 56.0%로 상승
- 일단 취업하면 취업유지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졌지만 미취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이동하는 것은 어려워져 노동시장 유연성이 오히려 저조해진 측면이 있음.
- 전환행렬의 대각선 요소는 상태안정성을 의미하는데 취업상태의 안정성은 1998년 95.7%에서 96.9%로, 비경제활동상태의 안정성은 94.6%에서 95.2%로 상승한 때문
- 세 상태 중 실업상태 안정성만이 67.9%에서 63.7%로 하락

<표 7> 노동력상태 이동행렬 분석

	1998	1999	2000	2001	2002
다음 달에 취업상태 유지	0.9568	0.9600	0.9627	0.9642	0.9688
다음 달에 실직	0.0432	0.0400	0.0373	0.0358	0.0312
다음 달에 재취업	0.0543	0.0603	0.0550	0.0571	0.0514
다음달에 미취업상태 유지	0.9457	0.9397	0.9450	0.9429	0.9486
1년 동안 취업유지	0.6150	0.6386	0.6585	0.6696	0.7053
1년 동안 미취업상태	0.5413	0.5048	0.5370	0.5238	0.5599
실업상태 유지	0.6793	0.6400	0.6274	0.6167	0.6374
3개월 동안 실업유지	0.4614	0.4096	0.3936	0.3803	0.4063
6개월 동안 실업유지	0.1446	0.1074	0.0972	0.0892	0.1052
12개월 동안 실업유지	0.0142	0.0074	0.0059	0.0049	0.0071

주: <표 6>로부터 계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취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를 유지한 자는 상대적으로 고연령

- 다음 달에 취업상태를 유지한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1998년 40.1세에서 2002년에는 41.0세로 0.92세 상승
  - 취업상태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이동한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39.8세로 다소 낮으며, 실업상태로 이동한 근로자는 34.3세
  - 1998년에는 상대적으로 고연령이 비경제활동상태로 이동한 데 반하여 2002년에는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이 취업을 유지하였으며, 실직자 중에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비경제활동상태보다는 실업상태로 이행

<표 8> 노동력상태 이동과 평균 연령

(단위: 세)

시점 t	시점 t+1	1998	1999	2000	2001	2002	2002-1998
생산가능인구		39.1	39.5	39.8	40.3	40.7	1.53
취업자		40.0	40.2	40.3	40.5	40.8	0.86
실업자		34.3	34.9	34.2	33.9	33.2	-1.03
비경제활동인구		38.5	38.9	39.6	40.2	40.8	2.33
취업에서	표본탈락	35.1	35.5	35.1	35.3	35.3	0.21
	취업	40.1	40.4	40.5	40.7	41.0	0.92
	실업	36.1	35.5	35.4	34.7	34.3	-1.82
	비경활	40.8	40.7	40.5	40.0	39.8	-0.96
실업에서	표본탈락	30.5	31.2	30.9	30.9	30.2	-0.37
	취업	34.6	34.9	34.2	33.9	33.2	-1.45
	실업	34.5	35.2	34.6	34.2	33.5	-1.03
	비경활	33.8	34.8	34.4	33.4	33.4	-0.37
비경활에서	표본탈락	34.7	35.2	35.1	35.3	35.3	0.56
	취업	39.9	39.3	38.7	38.9	39.0	-0.94
	실업	32.9	32.5	32.5	31.6	31.5	-1.38
	비경활	38.6	39.1	39.8	40.6	41.1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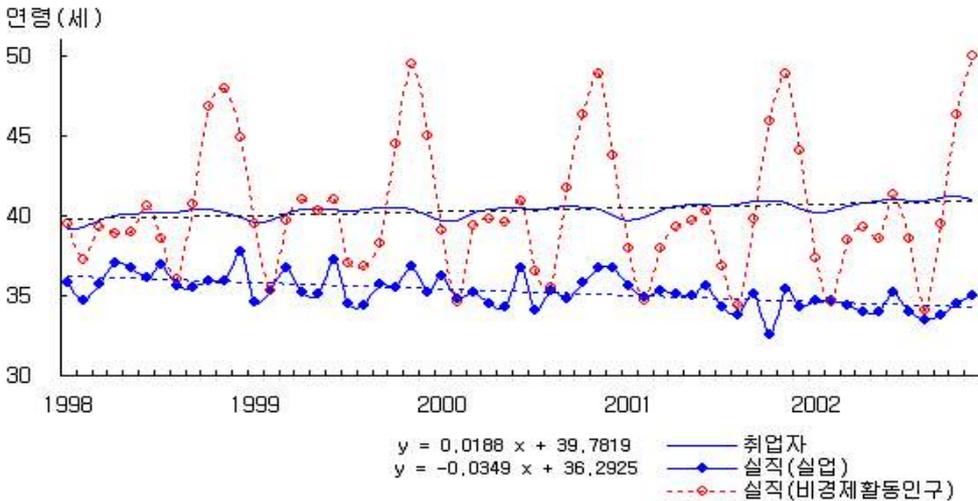
주: <표 5>에 주 참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다음 달에 비경제활동상태를 유지하는 자의 평균 연령은 38.6세에서 41.1세로 2.5세나 상승
  - 1998년에는 상대적으로 취업으로 이행한 자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았으나 2002년에는 0.94세 낮아진 39.0세로 상대적으로 고연령자가 취업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실업으로 이행하는 자의 평균 연령이 32.9세에서 31.5세로 1.7세나 낮아져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다음 달에 취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졌음.

- 취업자 평균 연령은 연간 0.23세 상승하는 반면 실직한 실업자의 평균 연령은 매년 0.42세 하락하는 추세를 유지
  - 취업자 연령은 상승하는데 실직자 연령은 오히려 하락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실직이 점차 저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
  - 최근 나타나는 신조어를 일견 지지하는 사실이지만 취업자 평균 연령이 상승하는 사실과 함께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고용경직성이 높아지고 있어 청년층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
  - 또한 생산가능인구 평균 연령 상승률이 취업자 평균 연령 상승률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볼 때 고령자 취업이 어려움을 의미

[그림 4] 실직자 평균 연령 월별 추이 (1998.2~2002.12)



◆ 35~49세 연령층에서 실직확률은 가장 낮고 취업확률은 가장 높음

- 1998년에는 40~44세 연령층에서 실직확률이 3.3%로 가장 낮았으나 2002년에는 45~49세 연령층에서 2.0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이 연령층을 전후해서는 연령층이 낮아지거나 높아질수록 실직확률이 높아져, 2002년에 20~24세 연령층의 실직확률은 6.4%에 이르고 60~64세 연령층은 3.8%
  - 이러한 사실은 노동시장 전체를 보았을 때 ‘오륙도’, ‘사오정’, ‘삼팔선’이라는 신조어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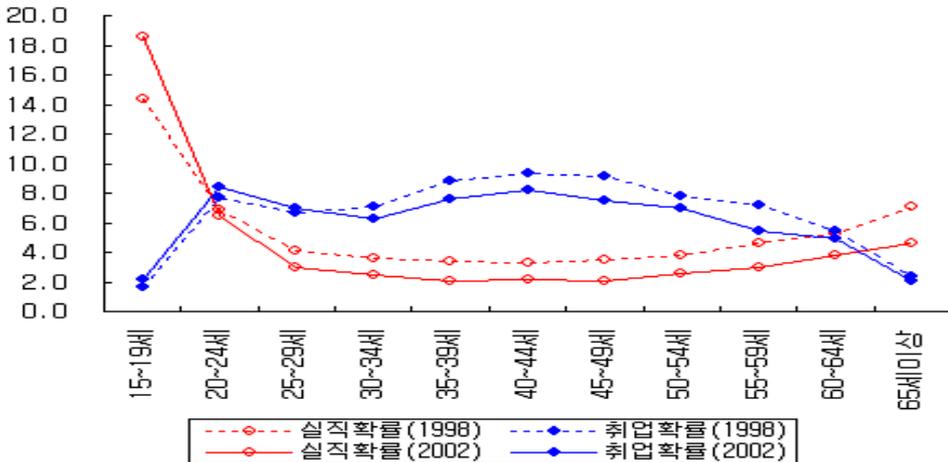
<표 9> 연령대별 노동력상태 이동행렬 분석(1998년과 2002년)

연령대	전체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65세 이상
<1998>												
실직확률	4.32	14.31	6.86	4.09	3.55	3.37	3.33	3.54	3.81	4.59	5.23	7.10
취업확률	5.43	1.67	7.69	6.68	7.07	8.85	9.36	9.08	7.81	7.20	5.42	2.34
취업유지율	0.9568	0.8569	0.9314	0.9591	0.9645	0.9663	0.9667	0.9646	0.9619	0.9541	0.9477	0.9290
12개월	0.6150	0.1829	0.4576	0.6313	0.6719	0.6862	0.6890	0.6730	0.6526	0.5963	0.5537	0.4450
미취업유지율	0.9457	0.9833	0.9231	0.9332	0.9293	0.9115	0.9064	0.9092	0.9219	0.9280	0.9458	0.9766
12개월	0.5413	0.8305	0.4149	0.4674	0.4462	0.3607	0.3392	0.3511	0.4088	0.4398	0.5418	0.7711
실업유지율												
2개월	0.6793	0.6037	0.6653	0.7097	0.6938	0.6821	0.6764	0.6844	0.6960	0.6676	0.6209	0.6309
3개월	0.4614	0.3645	0.4426	0.5037	0.4814	0.4653	0.4575	0.4684	0.4844	0.4457	0.3855	0.3980
6개월	0.1446	0.0802	0.1303	0.1801	0.1608	0.1477	0.1415	0.1502	0.1633	0.1326	0.0923	0.0999
12개월	0.0142	0.0039	0.0113	0.0230	0.0179	0.0149	0.0136	0.0154	0.0186	0.0117	0.0053	0.0063
<2002>												
실직확률	3.12	18.56	6.41	2.94	2.41	2.10	2.19	2.05	2.57	2.94	3.78	4.58
취업확률	5.14	2.14	8.36	6.94	6.28	7.59	8.16	7.47	7.00	5.42	4.93	2.08
취업유지율	0.9688	0.8144	0.9359	0.9706	0.9759	0.9790	0.9781	0.9795	0.9743	0.9706	0.9622	0.9542
12개월	0.7053	0.1046	0.4825	0.7205	0.7646	0.7917	0.7835	0.7958	0.7506	0.7199	0.6543	0.5970
미취업유지율	0.9486	0.9786	0.9164	0.9306	0.9372	0.9241	0.9184	0.9253	0.9300	0.9458	0.9507	0.9792
12개월	0.5599	0.7882	0.3826	0.4534	0.4900	0.4196	0.3922	0.4255	0.4502	0.5415	0.5735	0.7939
실업유지율												
2개월	0.6374	0.5439	0.5962	0.6901	0.6762	0.6378	0.6308	0.6022	0.5957	0.6623	0.6264	0.6613
3개월	0.4063	0.2958	0.3555	0.4762	0.4572	0.4068	0.3979	0.3627	0.3548	0.4386	0.3923	0.4373
6개월	0.1052	0.0476	0.0753	0.1565	0.1413	0.1055	0.0999	0.0792	0.0750	0.1274	0.0964	0.1265
12개월	0.0071	0.0012	0.0034	0.0169	0.0135	0.0071	0.0063	0.0038	0.0034	0.0108	0.0058	0.0106

주: <표 7>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5] 연령대별 실직, 취업확률 (1998년과 2002년)



- 취업확률은 1998년에는 40~44세에서 가장 높았으나 2002년에도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20~24세 연령층에서 취업확률(8.4%)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취업상태 1년 유지확률은 35~39세 연령층이 79.2%로 가장 높으며(1998년 68.6%에서 크게 상승), 20~24세 연령층은 48.3%에 불과하고, 60~64세 연령층은 65.4%로 상당히 안정적인 편
  - － 미취업상태 1년 지속확률은 40~44세와 20~24세 연령층에서 각각 38~39%로 가장 낮게 나타나며 60~64세 연령층은 57.4%에 이름.
  - － 실업상태 6개월 지속확률(취업확률과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확률의 조화)은 25~29세 연령층에서 15.7%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30~34세 연령층도 14.1%로 높은 편

#### IV. 요약 및 정책방향

##### ◆ 발견된 사실의 요약

-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간 경제위기 회복과정은 노동시장 전반적 추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경기침체가 지속된 2003년 한 해에 이러한 추세가 역전되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인구고령화 속도보다 취업고령화속도가 더디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농림어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서비스업에서는 취업고령화가 급진전된 반면 전기가스수도사업, 교육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에서는 취업자 평균 연령이 오히려 하락
- 지난 5년간 실직확률이나 취업확률 모두 하락추세를 유지하였으나 후자가 전반적으로 우세하였으며, 취업과 미취업상태의 상태안정성이 높아져 노동이동성으로 표현한 노동시장 유연성은 오히려 저하된 셈
- 전반적 노동시장을 보면, 여전히 35~49세 연령층의 실직확률이 2.05~2.19%인 점을 감안할 때, ‘오류도’, ‘사오정’ 또는 ‘삼팔선’으로 과장되는 고용불안정성 심화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정책방향

- 2003년 외부충격이 경기침체의 근본원인을 제공하고 2002년 내수진착책이 이를 증폭한 점이 있음을 감안할 때 2003년 경기침체가 노동시장에 미친 악영향은 일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취업자가 30천 명 줄었으나, 이는 주로 경기침체가 내수부진을 초래하고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심하게 받는 비임금근로자가 252천 명 줄어든 데서 기인하는 것
  - 고용은 오히려 221천 명(전년 대비 1.6%) 늘어났는데, 이는 상용직 근로자는 407천 명(전년 대비 4.5%) 늘어나고 경기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일용직 근로자가 303천 명(전년 대비 12.4%) 줄어든 것으로 오히려 고용구조는 개선된 결과
  - 2003년이 소위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전초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2002년 내수를 중심으로 한 지나친 노동시장 과열(취업자가 2.7%나 증가)에서 ‘숨고르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노동시장 유연화추세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므로 노동수요를 진작하고 노동공급의 질을 제고하며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정책이 필요 (상세한 정책방향은 ‘중기고용정책기본계획’(노동부, 2003년)을 참조)
  - 노동시장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유지하도록 정부는 경제 및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기업은 투자를 늘림으로써 정상적인 노동수요의 진작이 필요함.
  -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에 맞추어 개별 근로자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를 제고하는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투자체계를 수립하고, 효율적인 일자리매치를 위한 노동이동성의 확보를 통하여 효과적인 인적자원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생산가능함수(production possibility curve)를 최대로 팽창시키는 노동정책이 필요
  -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실직으로부터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사회안전망을 최대한 확충하고 건실화